

5G 상용화 개시... 통신 3사서 3조 투자

홍남기 혁신성장회의 겸 경제장관회의 열어 "5G 활용되면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다음 달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개시한다"며 "올해 통신 3사에서 3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그 동안 정부는 5G 주파수 조기 할당,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5G 구축량 최대 3% 세액공제 신설 등 5G 상용화 기반 조성에 힘써왔다"고 밝혔다.

그는 "5G는 방대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하고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라며 "5G 스마트폰이 3월 말 세계 최초로 출시되는 등 5G 이동통신 서비스 개시와 실감 교육,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전면 활용되면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 함께 상정된 선도 스마트 산단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민·관 합동 산단(산업단지)혁신추진협의회에서 스마트 산단의 선도모

델이 될 곳을 경상남도 창원과 경기 안산 반월시화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산단 프로젝트는 올해에만 2000억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된다. 선도 스마트 산단으로 정해진 창원과 반월시화에는 ▲스마트공장 확산 및 제조데이터 공유·활용 ▲근로자 친화 공간 조성 ▲신기술 테스트베드(Test-bed)화 및 첨단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한다.

창원의 경우 기계·전자 등 주력업종이 특화되었고 스마트 혁신기반이 풍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강해 스마트 산단을 도입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월시화는 1만 8000개에 이르는 부품·부립업체와 26만여명의 근로자가 밀집해 있어 스마트공장·데이터연계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크다.

정부는 산단별 사업단을 구성, 실행 계획을 마련해 4월부터 선도 스마트 산단 사업을 본격화한다. 하반기에 내년 스마트 산단도 추가 선정한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포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성운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중구 금융위원장, 홍중화 벤처중소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개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차영환

국무조정실 제2차장, 박천규 환경부 차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김대운 핀테크협회 회장, 김봉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소장, 이상춘 기가코리아 단장, 박주봉 중소기업융합부산 등이 참석했다. /뉴시스

부적합 농산물 출하·유통 철통 차단

전북농원, 유해물질 분석 58건 적발... 폐기·출하연기 조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은 매년 전북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등 유해물질을 분석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출하·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다.

2018년 전북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260품목 5,515건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분석 결과, 잔류농약(320성분) 4,943건 중 58건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253건, 병원성미생물(살모넬라 등 7종) 62건,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등 5종) 39건, 항생물질 등 기타 218건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 58건 중 생산단계(재배지)에서 적발된 42건은 폐기·출하연기 조치로 출하·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유통단계에서 적발된 16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농약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했다. 아울러, 농원원 관계자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제도가 금년 1

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어 관행적으로 농약을 사용한 경우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농업인들도 품목별 농약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작물에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 검출시에는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김영태 기자

홍남기 "정부 최저임금 개편안 발표, 다음 주 안 넘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경영계·노동계에서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발표는 다음 주를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19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20일 오전으로 예

정했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를 연기한다"고 일련 바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구간설정위원회·결정위원회)가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초안을 내놓고 전문가 토론회 등 여론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기업의 지급능력을 포함하는 방안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서 기업의 지급능력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반대 성명서를 낸 일에 대해서는 "단위 기간 확대 합의를 적극 환영하고 경사노위에 경의를 표한다. 노사간 사회적 대화에 의해 어려운 과제를 잘 해결한 사례"라면서 "단위 기간 확대 문제는 국회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돼 현장에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미국이 중국에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지 말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서는 "보도를 토대로 타국의 협상에 대해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요인이 환율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24시간 감시하며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외신은 19일(현지 시각) 미국이 무역 협상 과정에서 중국 측에 위안화 가치를 낮추지 말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불응하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뉴시스

"콘텐츠로 보이스피싱 예방해요"

금융감독원, 고령층 위한 피해예방 나서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에 유독 취약한 60대 고령층을 위한 피해 예방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금융소비자학회·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협력해 지난해 11월부터 총 35개 경로당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활동을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령층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0월말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3340억원의 22%에 달한다.

피해건수도 8627건으로 전체(만 4973건)의 18% 수준이다. 건당 피해액도 840만원으로 다른 연령층 대비 높은 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령별 건당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0대 이하 240만원, 20~30대 580만원, 40~50대 550만원이다. 이에 금감원은 10개 대학 소비

자학과(15개팀)와 연계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동영상과 상황극, 게임 등으로 피해사례와 예방요령을 전파했다. 15개 팀 중 홍보활동이 우수한 6개팀을 선정해 시상했다.

최우수상은 인천대와 총북대가 받았다. 인천대는 '8시 내고향'을 패러디한 동영상과 '인속는다 전 해라'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총북대는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제작하고 주사위게임과 카드뉴스 등을 선보였다.

우수상은 SBS에능프로그램 '비운 우리새끼'를 패러디한 이화여대와 영화 '신과함께'를 패러디한 숙명여대가 받았다. 장려상은 이화여대와 원광대 팀이 각각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상팀의 교육홍보 콘텐츠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전북농협은행,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0억 특별출연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도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특별출연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농협은행은 지난 2002년부터 총 80억원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했으며 이는 금융기관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또한, 특별출연금은 도내 어려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2%이내 저금리 특별보증대출 지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농협은행은 매년 800억원을 도내 소상공인에게 보증서 발급을 통

해 대출을 지원하는데 금융기관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도내 소상공인에게 대출하고 있다.

한편, 김장근 본부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아픔을 같이 하고자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출연을 결심했다"며, "농협은행은 지역은행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며 지속적인 특별출연을 통해 전북경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어촌공 전북,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로 안전 강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종만)는 지난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저수지, 양·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홍수, 가뭄 등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매분기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성이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가안전대진단에 참여하고 있다.

안전점검은 사전 인명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재해발생위험이 높

아 안전조치가 시급한 현장은 신속히 조치하고 보수, 보강이나 예산 확보 등 절차상 장, 단기 계획이 필요한 시설은 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까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병행하여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전북관내 10개지사가 동시에 실시하는 2019 국가안전대진단은 지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저수지 5만톤 이상 안전 C등급 이하인 농업용 저수지 50개소를 점검하고 해빙기 취약시설 재해요인 사전제거 및 건설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건설현장까지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